

# 『交隣須知』筆写本과 刊行本の

## 한국어 어휘의 비교\*

—한일 근대어 연구자료로서의 가치성을 중심으로—

片 茂 鎮\*\*

(e-mail: mjpyon@dku.edu)

---

### 目 次

---

1. 들어가기
  2. 韓國語語彙對照表
  3. 異本間 表記上の 特徴
  4. 어휘적인 측면
  5. 음운·어법적인 측면
  6. 마무리
- 

## 1. 들어가기

『交隣須知』는 江戸時代부터 明治時代に 걸쳐 널리 사용된 일본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韓國語學習書이다. 약 3000여 개의 漢字語를 類義別로 나누어, 그것과 관련한 한국어의 短文을 主文으로 하고, 그것에 対訳의 일본어를 붙여 작성한 일종의 韓日語 対訳 用例集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拙稿 「『交隣須知』筆写本과 刊行本の 일본어 어휘 비교」(『일본문화학보』 45집)의 후속편으로, 『交隣須知』 필사본의 한국어 어휘가 刊行本에서 어떤 식으로 수용되었는가를 통하여 근대한국어의 변천과정과 어휘적 특성, 그리고 本書가 가지는 언어의 통시적 연구 자료로서 그 가치 및 유용성에 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한편 前

---

\* 본 연구는 2010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단국대학교 교수, 일본어학

稿에서는, 일본어의 경우 初刊本에서 対訳 語彙를 채택하는데 있어서 우선은 増補本類의 그것을 참조하고, 그 나머지는 標題語와 의미적으로 같거나 類義語 관계에 있는 일본어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그 배경에는 기존의 増補本類의 일본어에 비교하여 당시의 보다 표준적인 어휘를 반영하려는 편집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sup>.

## 2. 韓國語語彙対照表

『交隣須知』는 당시 조선시대의 사회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한자어를 標題語로 하고 있는데, 語構成은 漢字 3자로 이루어진 단어도 일부 존재하나 기본적으로는 한자 1자 혹은 2자로 이루어진 熟語이다. 이 標題의 漢字語에 해당하는 한국어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여 用例文을 만들고, 거기에 対訳으로 일본어를 붙여 본문이 형성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제어에 대한 한국어가 写本類와 刊本類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용례문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한 대조표를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이를 하여 【한국어어휘대조표】 인데 대략적인 범례는 다음과 같다.

(1) 写本類는 苗代川本과 古写本類 그리고 増補本類로 대별하고, 刊本類는 初刊本을 대상으로 한다.

(2) 古写本類와 増補本類에서 각 異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語形을 제시하고(異本名 생략),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 밑에 해당 어휘를 제시하고 그 異本名을 < >로 표시한다.

(3) 표제어와 관련한 『倭語類解』의 어휘도 함께 제시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도출된 해당 어휘는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된다. 卷一의 처음 일부분만 제시한다.

1) 초간본의 校正者 우라세 유타카(浦瀬裕)는 対馬島 사람으로 조선어를 배워 外務省雇朝鮮語教授로서 부산의 朝鮮語學所에 제직했다. 明治14년의 『交隣須知』에 이어 明治15년에는 『訂正隣語大方』을 校訂·増補하여 같은 外務省藏版으로 출판하고 있다.(桜井1974:110-111 참조)

## &lt;표1&gt;

標題語	苗代川本	古写本類	增補本類	初刊本	校訂本	倭語類解
[1018] 東北風	동북풍	동북풍	동북풍 동북풍<武>	동북풍	동북풍	동북풍<倭上/ 天文,01b>
[1025] 旋風	호르레브 름	호르레브 름	호르레브름	회 리 브 름	회 리 브 름	선 풍<倭上/ 天文,01b>
[1129] 昨夜/昨 夕	어제 저 녁	어제 저 녁	어제 밤	어제 밤		작 석<倭上/ 天文,05b>

\* 標題語의 [ ]는 項目의 고유번호로 좌측 숫자는 卷數, 우측의 나머지 숫자는 項目의 順次이다(예를 들면, [1018]은 卷一의 18번째 항목을 나타냄. 拙著『諸本対照 交隣須知』에 의함). < >는 異本名이며, < >이 없는 경우는 다른 이본에 공통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1129]처럼 「/」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 좌측은 苗代川本(혹은 苗代川本을 포함하는 사본류)상의 표제어, 우측은 『倭語類解』의 표제어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당면 과제는 筆写本の 한국어가 刊本類, 그 중에서도 특히 初刊本(<初>)에서 어떤 한국어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우선 사본류는 古写本類인 苗代川本(<苗>)과 增補本類(<增>)를 중심으로 하며, 항목 선정에 있어서는 異本間의 단순한 표기상의 차이(원순모음, ‘ㅣ’움라우트, t구개음화 표기 등)나, ‘말ㅎ여/말ㅎ앗는지라’와 같이 동일한 語幹이나 語根 하에서의 語尾 형태와 같은 사소한 語法 차이는 무시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도출된 항목은 초간본에 해당 어휘가 없는 항목을 제외하면 全 4卷에 걸쳐 약 450여 개가 되며, 異本間의 대응관계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유형으로 분류 가능하다. <표2>

- i : 苗=增≠初
- ii : 苗≠增=初
- iii : 苗≠增≠初(苗=初 포함)
- iv : 苗≡增(複數)≡初(苗=增, 增=初 포함)

## &lt;표2&gt;

異本 例 類型	卷一		卷二		卷三		卷四		計 463 평균%
	용례수	%	용례수	%	용례수	%	용례수	%	
i	79	66	86	76	93	66	85	93	75
ii	14	12	9	8	33	24	1	1	11
iii	18	15	3	3	12	9	1	1	7
iv	8	7	15	13	2	1	4	5	7

### 3. 異本間 表記上の 特徴

日本語 対訳語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標題語(한국식 한자어)에 대하여 苗代川本에서는 대역의 일본어로 字訓을 주로 사용하고, 초간본에서는 주로 표제어와 동일한 한자를 포함하는 일본식 한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苗(古写本類) > 増補本類 > 初刊本  
 標題語(漢字語) ;      字訓                      字音                      漢字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는 이러한 표기상의 두드러진 특징을 발견할 수 없다. 사본류와 간본류 모두 표제어에 대한 字訓, 즉 고유어로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표제어에 대한 字音 표기는 사본류(苗代川本)에 약간 많이 나타나는 정도이다.(51 대 34)

- 예) [1035] 林雨 // <苗> 님위 / <増> 님위 / <初> 장마  
 [1157] 近間 // <苗> 근간 / <増> 요스이 / <初> 요스이  
 [2686] 灰色 // <苗> 돌물 / <増> 회식 / <初> 회식  
 [3622] 密果 // <苗> 굴 든 과슬이 / <増> 물 든 과즈 / <初> 물 든 과즈

### 4. 어휘적인 측면

본문의 한국어에 대한 대역어로서의 일본어와는 달리, 표제 한자어에 대한 번역어로서의 한국어는 異本間의 대응관계가 상대적으로 단조롭다. 가령 일본어의 경우는 増補本の 사본류에 다양한 대역어가 나타나지만, 한국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異形態로 나타나는 예가 적다(iv 유형). 이것은 본서의 주된 사용자인 일본인들에게 본문은 외국어에 해당하는 한국어이기 때문에, 필사본으로 전수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보수적인 언어의식이 표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신에 사본류의 語形과 다른 형태의 어휘가 초간본에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하 <표2>에 근거하여 초간본에서의 어휘의 수용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i 유형

写本類(苗代川本과 増補本類)에서 동일한 어휘가 초간본에서 달라진 경우로 거의 8할을 점하고 있다<sup>2)</sup>. 이것은 초간본(1881년)을 편집할 당시, 그 이전의

사본류에 사용된 한국어가 이미 옛말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부분 당시의 시세말로 고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하 초간본의 관점에서 苗代川本の 어휘가 변화한 예들을 대상으로 그 어휘적 성격을 세분하여 설명한다.

### 1) 古語 > 新語

대부분 이 예에 속한다. 용례의 일부만 제시한다.

- [3215] 定南針 // <苗> 딩남침 / <增> 덩남침 / <初> 지남침(指南針)  
 [3381] 卜繩 // <苗> 짐바홀 / <增> 짐바홀 / <初> 짐바  
 [1298] 灘 // <苗> 여홀 / <增> 여홀 / <初> 여울  
 [1615] 某 // <苗> 아모가히 / <增> 아모가이 / <初> 아모기  
 [2019] 駁馬 // <苗> 어룽뎨 / <增> 어룽뎨 / <初> 얼넉뎨  
 [2099] 鮒魚 // <苗> 부어 / <增> 부어 / <初> 붕어  
 [4011] 呵欠 // <苗> 하프욘 / <增> 하프욘 / <初> 하품  
 [1034] 雹 // <苗> 므릭 / <增> 므릭 / <初> 우박  
 [3816] 富 // <苗> 가여면<sup>3)</sup> 사름 / <增> 가여면 사름 / <初> 부자  
 [4457] 徐 // <苗> 날회여 / <增> 날회여 / <初> 천천이  
 [3886] 斜眼 // <苗> 눈흠빈 사름 / <增> 눈흠빈 사름 / <初> 눈흠뿌기  
 [4138] 訥 // <苗> 말뎨두어리논 / <增> 말뎨두어리논 / <初> 어물흔  
 [3257] 煙竹 // <苗> 담마대 / <增> 담마대 / <初> 담베째

항목 [3215]의 예와 같이 異本에서 모두 한자어로 나타나는 경우는 별도로 하더라도, 소위 ㅎ종성체언으로 옛말에 속하는 ‘짐바홀’이 초간본에서 ‘짐바’로 된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나머지 사본류의 한국어도 19세기 말 시점에서는 모두 그 이전의 옛말, 적어도 18, 19세기 중기 이전의 어휘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어휘들을 초간본에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미 어형이 변화하여 현대어와 거의 같은 형태가 된 경우(제시한 예의 전반부)도 있지만, 다

2) 이것은 일본어의 경우와 반대 현상이다. 일본어에서는 초간본의 어휘가 증보본류와 동일한 경우가 6할을 상회한다(편무진2010:54 참조). 또한 卷四 경우는 90%이상이 이 유형에 속하며, 비율에서 나머지 3卷과 차별된다. 이것은 卷四의 부문이 [靜止] [手運] [足使] [心動] [言語] [語辭] [心使] [四端] [雜語] [逍遙]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卷四에는 대개 事物의 形狀을 나타내는 類義語들이 모여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초간본에서, 단순한 사물의 개념이 아니라 형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선택 언어나 표현이 보다 가변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卷一에서 卷三까지는 주로 사물의 개념과 관련한 유의어들이 모여 있다.

3) 표제어 「富」의 번역어인 ‘가여면’의 용례는 다른 문헌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아마 古語 ‘가여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倭語類解』에는 ‘가음열 부’로 되어 있다. 苗代川本の 예문에서는 일본어로 ‘富貴하다’는 의미의 「ブケンダ」가 대역되어 있다.

<苗/三59a> 富 가여면 사름이 김박흐면 즈손(子孫)이 영화 보옵니  
 ブケンナ ヒトガ シツバクニスレハ シソウガ 榮華ヲ ミマスル

른 말로 대체한 경우(제시한 예의 후반부)가 훨씬 많다. 당시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개별 단어에 대한 어휘 변천사를 밝히는데 유용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3257]의 ‘담배’는 현대어의 ‘담배’이나, 이 단어의 어원은 ‘단마’인 것 같다. 이 ‘단마’의 사용례는 한국의 문헌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대신에 일본의 자료에 그 예가 보인다. 이 ‘단마’가 『交隣須知』의 苗代川本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옛 薩摩藩 苗代川(현재의 美山지방)에 전하는 『漂民對話』(1845년 書写)에 4,5예 나온다. 그 예의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울흔손바당을 버혀 피가 만히 나니 단마를 붓쳐 종회로 밷여 잇스오되  
右ノ手ノハラヲ キッテ 血ガ タント テルニヨリ タバコヲ ツケテ 紙テ 마이テ ヲリマス  
レドモ <京都大本, 上/19a>

단마가 못 먹을 리가 이실가 보온가  
多葉粉ガ ノマレヌ ワケガ アル モノデコサリマスルカ <京都大本, 上/31a>

日本 단마대는 朝鮮대처로 목통이 크지 아닌디 엇지훤가  
日本ノ キセルハ 朝鮮ノ 키셀노야フニ ハチガ 가トフ 나ヒ가 드フ스ル카 <京都大本,  
上/30b>

‘단마’의 대역 일본어는 「タバコ」와 「多葉粉」이고, 특히 ‘단마대’는 苗代川本에 같은 형태로 나온다. 적어도 당시의 対馬島와 薩摩藩의 한국어 학습자들 사이에서는 ‘단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단마’가 ‘담마’를 거쳐 ‘담배’로 변화하는 과정을 『交隣須知』가 잘 나타내고 있다<sup>4)</sup>. 또한 사본류의 ‘덩남침’도 국내 문헌에서는 그 용례를 찾아보기 힘든데, 역시 『漂民對話』에 사용례가 보인다.

4) 苗代川本에 비하여 초간본에 古語的인 어휘가 채용된 예도 극소수 존재한다.

- [3578] 救援 // <苗> 구원 / <増> 구완 / <初> 구완  
[3831] 貧 // <苗> 마난훤 / <増> 곤난훤 / <初> 간난(艱難)훤면  
[4065] 壓 // <苗> 눌오고 / <増> 눌오고 / <初> 눌우고  
[4222] 姑 // <苗> 아직 / <増> 아직 / <初> 안직

그러나 ‘간난’은 1907년 간행된 『日語正則』에도 사용예가 보이고, ‘안직’ 등도 방언(충청도, 함경도)적인 요소인 점을 감안한다면, 당시 이와 같은 어휘가 여전히 사용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구원’의 옛말인 ‘구완’도 校訂本에서 그대로 쓰이고 있다.

貧乏ナ 代リニ 生活ノ 程度(テイド)ガ 低(ヒク)イデス  
간난훤 뒤신에 生活훤은 程度가 낮습니다 <『日語正則』 p.70>

비질홀 ㅁ디는 定南針 업스셔는 못흔 거시오

船イリヲ イタス セツハ 方針 ナクシテハ 相ナリマセヌ 品ニテ <京都大本, 上/43b>

## 2) 方言 > 標準語

사본류에는 방언적인 요소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1350] 涸 // <苗> 허욘 / <増> 허욘 / <初> 헤염

[3073] 漱木 // <苗> 양지 / <増> 양지 / <初> 니 수시는 거시 ; 양지(경남 방언)

[3175] 倍 // <苗> 차로 / <増> 차로 / <初> 차루 ; 차로(경남 방언)

주로 경상도 방언인데, 실은 초간본에도 방언적인 요소가 일정 부분 섞여있다.

[1311] 氷 // <苗> 어림 / <増> 어림 / <初> 어림 ; 어림(경남 방언)

[1435] 浦作 // <苗> 포작 / <増> 보작 / <初> 희부 ; 해부(어부: 강원도 방언)

[1650] 鼻孔 // <苗> 코구멍 / <増> 코구멍 / <初> 코꾸영 ; 구영(구멍: 강원, 경상, 함경 방언)

[2027] 猪 // <苗> 도다지 / <増> 도다지 / <初> 도야지 ; 도야지(제주 방언)

[2046] 獾 // <苗> 오소리 / <増> 오소리 / <初> 오슈리 ; 오슈리(경남 방언)

[3627] 嗜 // <苗> 즐기논 / <増> 즐긴 / <初> 질기논 : 질기다(경상도 방언)

주로 경상도 방언과 관련한 어휘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交隣須知』가 당시의 釜山の 草梁에 위치해 있던 倭館을 중심으로 伝承, 출판된 책자임으로 경상도 방언이 개재될 소지는 다분히 있었을 것이다. 단 초간본에 비해 사본류에 방언적인 어휘가 적게 나타나는 것은, 사용된 어휘가 古語인 동시에 方言일 경우에 그것들은 고어로 취급하였기 때문이다. 초간본 당시만 해도 표준어에 대한 의식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언적인 요소가 개입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 (2) ii 유형

初刊本の 한국어가 増補本類의 그것과 같은 경우로, 초간본의 어휘가 선택되는 과정에서 증보본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예들이다. 일부의 예를 제시한다.

[1165] 夜間 // <苗> 야간 / <増> 밤 스이 / <初> 밤 스이

[2570] 瓦 // <苗> 지새 / <増> 기와 / <初> 기와

[3392] 一隻 // <苗> 혼 척 / <増> 혼 짝 / <初> 혼 짝

[3906] 頭痛 // <苗> 머리 알프기 / <増> 머리 앓픈 디 / <初> 머리 압홀 쎄

[4661] 漠漠 // <苗> 아막아막호여 / <増> 막막호여 / <初> 막막허여

주로 苗代川本の 한자어가 증보본류에서 고유어로 교체된 것을 초간본에서 수용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예는 약 1할 정도로 그다지 많지는 않다. [4661]의 예처럼 증보본류에서 標題 漢字에 대한 字音표기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고유어인 경우에는 苗代川本の 古語를 증보본류와 초간본에서 당시의 일반적인 어휘로 바꾸고 있어, 결과적으로 苗代川本과 初刊本の 양상은 i 유형과 같은 경향이다.

### (3) iii 유형

苗代川本과 增補本類 그리고 初刊本の 어휘가 각각 다른 경우인데, 증보본류를 매개한 상태에서 苗代川本과 초간본이 같고 증보본과는 서로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

- [1033] 霰 // <苗> 싯눈 / <增> 딸눈 / <增> 쓸락눈  
 [1405] 兵 // <苗> 병장뭇치<sup>5)</sup> / <增> 병장괴 / <初> 병괴  
 [1673] 禿髮 // <苗> 민대갈이 / <增> 민다야 / <初> 대머리  
 [2642] 交織 // <苗> 교직 / <增> 싯나히 / <初> 교직  
 [3244] 柄 // <苗> 즈로 / <增> 줄늘 / <初> 즈루  
 [4107] 嚇 // <苗> 저히다 / <增> 절리여도 / <初> 으르저기루셔

[2642]의 예처럼 苗代川本과 초간본이 같은 語形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별도로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苗代川本, 增補本類, 初刊本을 거치면서 보다 近現代語의인 새로운 어휘로 변화해 갔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는 다음의 iv 유형과 더불어 소수에 불과하다.

### (4) iv 유형

苗代川本과 초간본 사이에 존재하는 증보본류에 複數의 異形態의 어휘가 나오는 경우이나<sup>6)</sup>, 그 숫자 또한 그다지 많지 않다.

- [1078] 去年 // <苗> 거년 / <增> 상년·거년<처> / <初> 거년  
 [2040] 狐 // <苗> 여의 / <增> 여의<서>·여외<濟>·여호<會> / <初> 여후

5) 역시 苗代川지방에 전래하는 『講話』 등에도 ‘뭇치’의 예가 보인다.

胡椒와 丹木 白礮뭇치는 亦是 添載히다 히고 몬져 기별이 와서되  
 胡椒ト 丹木 白礮ルイハ コレ又 ツミノエト 申シテ 先達テ 左右カ マイリマシタドモ <京都大本, 15a>

6) 증보본류의 일부로, <처>는 尙馬本(1855년경 筆写), <서>는 서울대본(1868년~1873년), <濟>는 濟州本(1880년), <會>는 Aston本 朝鮮語會話書[假題](1885년), <武>는 武藤本(1873년)의 略稱이다.



- [1233] 地 // <苗> 짜히 / <増> 쌍은·짜히<対> / <初> 쌍은  
 [2547] 竈 // <苗> 부억아고지 / <増> 부억아고지·부억아금지<서> / <初> 부억아금지  
 [3363] 双馬 // <苗> 상마 / <増> 쌍마·상마<武> / <初> 쌍마  
 [4478] 逼 // <苗> 피박혀여 / <増> 피박혀여·핍박혀여<서> / <初> 핍씩혀여

항목 [1078]의 예처럼 異本에 공통하는 어휘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증보본류 안에 苗代川本과 같은 어휘가 나오는 異本, 초간본과 같은 어휘가 나오는 異本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특히 이 경우는 本書의 성장 과정, 다시 말해서 苗代川本과 같은 古写本類에서 増補本類를 거쳐 刊本에 이르는 과정에서 초간본이 어느 증보본을 많이 참조하였는가를 밝히는데 유용하지만, 그다지 두드러진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는 苗代川本에서 초간본으로 갈수록 근현대어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증보본류는 新旧語가 공존하는 과도기적인 언어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한편, 소위 俗字나 俗訓<sup>7)</sup>에 속하는 漢字나 訓의 예도 본서에 일부 나타난다. 鮎見房之進의 『雜攷』 제3집에 수록된 「俗字攷 附俗訓字, 俗音字」 중에서 『交隣須知』와 관련이 있는 것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俗字】

- |      |   |
|------|---|
| 卜(복) | [3385]<苗/三28a> 짐 二, <初/三40b> 짐 荷                    |
| 太(태) | [2186]<苗/二21a> 청대 アヲママ / 콩 マメ, <初/二14b> 콩 マメ        |
| 杻(추) | [2371]<苗/二35a> 빠리 ハキ / 광대빠리 ノハギ, <初/二27b> 쓰리 ハギ     |
| 漙(줄) | [1371]<苗/一27b> 注乙 <sup>8)</sup> 줄, <初/一27a> 注乙 줄 ツナ |
| 畚(답) | [2275]<苗/二28a> 논 ハタケ, <初/二21a> 논 夕 <sup>9)</sup>    |
| 媻(남) | [1626]<苗/一47a> 오라비 コジウト, <初/一42a> 오라번님 妻ノ兄弟         |
| 莎(사) | [2469]<苗/二42a> 썩 스키, <初/二33a>莎草 스초(莎草) シバ           |
| 堍(돌) | [2572]<苗/二50a> 굴독 ケムリダシ, <初/三02b> 구돌 クツロ            |
| 楸(추) | [2391]<苗/二36b> 마래 히사기                               |
| 椴(가) | [2357]<苗/二33b> 피남그 トチノキ, <初/二26b> 피남그 モミノ木          |
| 磚(전) | [2545]<苗/二48a> 박석 イシクス, <初/二35a> 박석(薄石) 石ガハラ        |
| 褌(보) | [3027]<苗/三03a>襠褌 깃 シメシ, <初/三17b>襠褌 똥기저귀 シメシ         |
| 糖(당) | [2196]<苗/二22a> 슈々 키비, <初/二15b> 슈슈 키비                |
| 鯪(홍) | [2113]<苗/二15b>鯪魚 홍어 エイ, <初/二09b>鯪魚 가오리 エヒ           |

7) 여기서 말하는 俗字는 ‘어느 시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한자’(鮎見1938:37), 俗訓은 ‘한자의 뜻을 빌어 쓰거나 혹은 본래의 한자 뜻과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鮎見1938:275)을 말한다.

8) 이것은 한국어 ‘줄’의 음계에 의한 표기방식으로, 두 자를 합하여 한 자로 한 가차조자(假借造字)라고 할 수 있다.

9) ‘畚’자는 ‘水’와 ‘田’의 두 자를 합한 동국조자(東國造字) ‘답’자로 訓은 ‘논’이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서는 陸田, ‘밭’으로 사용되는 반면 일본에서는 水田, 즉 ‘논(田)’으로 쓰인다. 苗代川本の 대역 일본어 ハタケ는 ‘밭’으로 한국식 의미에 따르고 있으나, 초간본에서는 夕(田)로 일본식 훈을 취하고 있다.

- 藿(곽) [2266]<苗/二27b>甘藿 며옥 ワカメ, <初/二20b>甘藿 메역 和布  
 鐙(선) [3122]<苗/三09b> 다야 카나타라이, <初/三22a>匣 대야 타라히  
 鯁(연) [2107]<苗/二15a>鯁魚 년어 사케, <初/二09a>鯁魚 년어 사케

## 【俗訓】

- 石 [섬] [3393]<苗/三29a>一石 혼\*섬 一俵  
 串 [곶] [4607]<苗/四44b> 저곶스 クシ, <初/四44b> 쇠곶치 鉄串  
 杉 [잇가나모] <sup>10)</sup>[2362]<苗/二34a>杉木 잇가나모 スクノキ, <初/二27a>杉木 잇가나무 スギノ木  
 叔 [아즈비] [2041]<苗/二09b>兎 특기 아즈비 ウサキノ ヲチ, <初/二04a>兎 특기 아즈비 兎ノ 叔父  
 妹 [아오누의] [1579]<苗/一43a> 아오누의 イモウト, <初/一40a> 손아래 누의 妹  
 苜蓿 [게오목] <sup>11)</sup>[2252]<苗/二26b> 게오목, <初/二19b> 게오목 苜蓿  
 原 [언덕] [1251]<苗/一18b> 언덕 ハラ, <初/一19a> 언덕 原  
 栢 [жат] [2318]<苗/二31a>栢子 жат스 マツノミ, <初/二24a> 자스 松ノ実  
 羔 [염쇼] [2013]<苗/二07a> 염쇼 ヤキノ子, <初/二02b> 양 児羊  
 辛夷 [개누리] <sup>12)</sup>[2429]<苗/二39a>辛夷花 개누리꽃츠 コフブシノハナ  
 嫂 [아즈미] <sup>13)</sup>[1582]<苗/一43b>兄嫂 아즈미 アニヨメ, <初/一40a>兄嫂 큰 아지면님 兄嫂サマ  
 鞆 [드래] <sup>14)</sup>[3360]<苗/三26a> 드래 アヲリ, <初/三39a>鞆 드래 アオリ  
 稷 [피] [2192]<苗/二21b> 피 히오, <初/二15a> 씨 히오  
 桧 [젓나모] [2359]<苗/二34a> 젓나모 히노키, <初/二26b> 젓나무 桧木  
 薤 [부치] <sup>15)</sup>[2228]<苗/二24b> 부치 니라, <初/二17b> 부초 니라

俗字는 본래 한자어이기 때문에 초간본에 그대로 수용되는 것은 転写者들의 보수적인 표기의식의 발로로 설명될 수 있겠다. 그러나 한자어에 대한 한국어 번역에 해당하는 俗訓은 초간본에서 보다 표준적·일반적인 어휘로 교체되는 예들이 있어, 앞의 경우와 궤를 같이 한다.

## 5. 음운·어법적인 측면

이상과 같이 『交隣須知』의 한국어는 苗代川本으로부터 초간본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휘적인 차원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10) 『訳語類解』 「樹木」 部門에는 俗稱으로서 ‘익개나모’로 되어 있다(鮎見1938:284 참조).  
 11) 『物名考』 「草」 部門에는 俗名 ‘게오목’으로 나와 있다(鮎見1938:293 참조).  
 12) ‘신이’의 본래의 한자는 ‘莘蕒’이고, 방언명이 ‘개누리’로 되어 있다(鮎見1938:324 참조).  
 13) 『訓蒙字會』 「天倫」 部門에 ‘兄之妻’의 의미로 ‘아즈미’가 사용되고 있다(鮎見1938:335 참조).  
 14) 본래의 語形은 ‘드래’이다(鮎見1938:339 참조).  
 15) 본래 ‘薤’는 ‘염교’(ラッキョウ)의 뜻인데, 여기서는 「니라」 의미의 ‘부치’로 사용되고 있다(鮎見1938:358-360 참조).

주로 초간본에서 그 이전의 古語的인 어휘들을 당시의 일반적인 어휘로 교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본류의 방언적인 요소를 초간본에서 표준어적인 요소로 수정한 예가 약간 보인다. 아울러서 음운론적으로 苗代川本에서 語頭の 된소리 ‘ㅍ’음을 평음 ‘ㅍ’으로 표기한 것을 초간본에서 수정한 예가 2,3 보이는데, 그것도 역시 경상도 방언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3241] 春 // <苗> 슬기 / <增> 슬기 / <初> 쌀키

[3362] 雙騎馬 // <苗> 상기마 / <增> 쌍기마 / <初> 쌍기마

한편 구개음화와 관련하여 k구개음화가 苗代川本에 1예, h구개음화가 초간본에 약간 용례가 보이는데, 이 또한 한국어의 지역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헌상 k구개음화나 h구개음화는 16세기말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18세기 중기에는 방언에서 매우 일반화되어 나타나고, 특히 h구개음화는 18세기말의 경상도 방언자료에 흔히 등장한다(홍운표1994:307-308).

· k구개음화

[2254] 海衣 // <苗> 짚 / <增> 침 / <初> 김

· h구개음화

[1661] 舌 // <苗> 혀 / <增> 혀 / <初> 셔

[2534] 椽 // <苗> 혁가리 / <增> 혁가리·셔가리<會> / <初> 셔가리

[3579] 助力 // <苗> 힘 / <增> 힘 / <初> 실

단, [2534]의 현대어 ‘써가래’의 古語인 ‘셔가리’는 ‘혁가리’의 ‘혁’이 h구개음화된 형태이기는 하나, 방언적인 요소라기보다는, 당시에는 두 가지 어형이 같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초간본에서 ‘셔가리’로 선택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셔’와 ‘심’과 같이, 특히 초간본에 h구개음화와 같은 방언적인 요소가 완전히 걸러지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어 학습서로서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것들은 명치37년(1904)의 校訂本에서는 모두 ‘혀’와 ‘힘’으로 고쳐졌다.

문법적으로는 『交隣須知』의 사본류에서는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어미로 ‘-시니’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sup>16)</sup>. 이것을 초간본에서 근대어적인 어법으로 고

16) 조선시대의 문헌자료에도 ‘-(어)시니’가 일반적이다.

觀念要錄(1637)

셔방 줘미타블은 이 사바의 각별흔 인연이 이시니.

흐다가 흐 ㄹ라치져 부쳐을 아니 렴흐면. <勸念:7b>

蒙語老乞大(1741)

우리 얏프로 行흐야 十里 싸히 흐 瓦子店이 이시니. <蒙老1:13a>

쳤다.

[4375] 盈 // <苗> 차시니 / <増> 차시니 / <初> 차쓰니

이처럼 『交隣須知』는 異本間의 대조·비교를 통하여 한국어에서 근대어적 어휘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을 밝히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交隣須知』의 사본류에는 ‘(말이) 야비달ㅎ다(イバウ)’ ‘봄(サビ)’ ‘고노(ハサミショウギ)’와 같이 국내의 문헌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어휘들이 散見한다. 앞으로 語彙史 研究 차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067] 馬嘶 // <苗> 야비달ㅎ- / <増> 야비달ㅎ-·우웁느니<会> / <初> 웃느니라

<苗/二11b> 馬嘶 물이 봄이면 야비달ㅎ읍니  
ムマカ ハルニナレハ イバイマスル

[2721] 銚垢 // <苗> 봄 / <増> 봄 / <初> 동녹(銅録)

<苗/二61a> 銚垢 봄의 끼여시니 마라 다고  
サビガカ、ツタトイテヤレ

[3413] 仮碁 // <苗> 고노 / <増> 고노 / <初> 고누

<苗/三30b> 仮碁 고노란 거시 또 흘 슈가 업지 아니호오니  
ハサミショフキハ マタ テノナイテモコサラン

사실 초간본의 校正者인 우라세(浦瀬裕)는 초간본을 편집할 당시 「古言二種」의 존재를 의식하여 「甲ノ古言」, 즉 中世語를 버리고 「乙ノ古言」, 즉 近世語를 적극 수용하려 하였다<sup>17)</sup>. 또한 경상도 말을 버리고 경기·서울말을 취하려고 힘썼지만 역시 부족했던 것 같다. 오히려 우라세가 초간본 편집에서 의욕적으로 시도한 朝鮮語文의 혁신이 당시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비판이 있었다(幣原1904:45). 그 대표적인 예가 ‘하외다’의 ‘하’를 모두 ‘허’로 고친 것인데, 이와 같은 초간본의 문제점은 前間恭作·藤波義貫에 의한 校訂本(明治 37년)의 「緒言」에도 잘 나타나있다.

(前略) いふまでもなく原本(初刊本：引用者注)の最も非難を受くる所は、措辞の意義をなさざるもの、方言、又は謬りたる字句の多きが為め課本たるに堪へざる点にありしか故に、

17) 『交隣須知』 초간본의 「凡例」 참조.

予輩校正の第一義は此等を改竄し修正するにありしかども(攻略)

이와 같은 초간본은 한국어 학습서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는 있었지만, 근대 후기 한국어의 언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sup>18)</sup>.

## 6. 마무리

본고는 『交隣須知』筆写本の 韓国語 語彙가 刊行本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통하여, 近代韓国語의 변천과정과 어휘적 특성, 그리고 本書가 가지는 언어의 통시적 연구 자료로서 그 가치 및 유용성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 古写本類의 苗代川本에서 刊本으로 갈수록 近現代의인 경향이 강해지고, 増補本類는 新旧語가 공존하는 과도기적인 언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本書가 18세기 초에 성립되었다고 보았을 때, 原「交隣須知」의 모습을 그래도 많이 간직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古写本類가 苗代川本이다. 이 苗代川本은 대략 19세기 초에 筆写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그 한국어는 대략 18세기, 다시 말해서 近代 中期의 언어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19세기 말의 초간본은 近代語 後期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사이에 위치하는 증보본류는, 언어 변화에 보수성을 띠고는 있지만, 대략 1800년을 전후한 시기의 문헌자료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18) 筆者는 이 초간본의 간행은 동경외국어학교의 조선어학과에서 생도용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하여 급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 적이 있다(편무진2005:85-87 참조).

## 【参考文献】

- 편무진(2005) 『「交隣須知」の基礎的研究』, 제이앤씨
- 편무진(2005) 『諸本対照 交隣須知』, 제이앤씨
- 편무진(2010) 「『交隣須知』筆写本과 刊行本の 일본어 어휘 비교—初刊本에서의 어휘 수용 과정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45, pp.47-66
- 편무진 · 한세진 · 김진경(2005) 『読習 日語正則(해제 · 색인 · 연구 · 원문)』 불이문화
- 편무진 · 岸田文隆(2006) 『漂民対話(해제 · 본문 · 색인 · 원문)』 불이문화
- 홍윤표(1994) 『근대국어연구(I)』, 태학사
- 鮎見房之進(1938) 「俗字攷 附俗訓字, 俗音字」 『雑攷』 제3집(『原本 郷薬採取月令 俗字攷 · 俗文攷 · 借字攷』 所収, 대제각, 1987)
- 桜井義之(1974) 「日本人の朝鮮語学研究(一)—明治期における業績の解題—」 『韓』 3-8, pp.107-120
- 幣原坦(1904) 「『校訂交隣須知』の新刊」 『史学雑誌』 15-12, pp.43-54

## 要 旨

本稿は、拙稿「『交隣須知』筆写本と刊行本の韓国語語彙の比較」(『日本文化学報』45集)の後続編で、『交隣須知』筆写本の韓国語語彙が刊行本においてどのように受容されたかを通して、近代韓国語の変遷過程と語彙の特性、そして本書がもつ言語の通時的研究資料としてその価値および有用性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まず日本語は、初刊本において対訳の語彙を採択するにおいてまずは増補本類のそれを参照し、標題語と意味的に同じか類義語の関係にある日本語を受容しようとする傾向がう

かがえた。その背景には、既存の増補本類の日本語に比べて当時のより標準的な語彙を反映しようとする編集意図があったものと推定した。いっぽう韓国語の場合は、古写本類の苗代川本から刊本にいたるほど近現代的な傾向が強くなり、増補本類は新旧語が共存する過渡期的な言語現実を反映しているものと思われる。結果的に、本書の成立が18C初だとすると、苗代川本は原「交隣須知」の古形をより多く保っているものとされる。この苗代川本は大体19C初に筆写されたものと推定されるが、その韓国語は大体18C、つまり近代中期ごろの言語現実を反映するとみて差し支えないと思う。そして19C末の初刊本は近代語の後期に属するし、その間に位置する増補本類は、言語変化に保守性をあびてはいるものの、大体1800年を前後した時期の文献資料に分類できると思う。

キーワード：韓国語学習書、交隣須知、韓国語語彙対照表、近代韓国語、  
対訳資料

투 고 : 2010. 2. 28

1차 심사 : 2011. 3. 19

2차 심사 : 2011. 4. 2